

극단 청춘 '예술극장-통(通)' 오픈 다양한 장르 어우러지는 문화아지트

음력으로 연극인생 23년째인 극단 '청춘'의 오설균(42) 대표가 또 한번 일을 저질렀다. 1990년 후반 연극인들과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공간 소극장'을 운영하다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접었던 경험이 있는 오대표가 최근 다시 도전에 나섰다. '청춘'이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세무서 맞은 편 4층 건물 지하에 '예술극장-통(通)'을 오픈했다. 당초 극단 이름을 따 극장 이름을 짓지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지역 문화관의 작

들의 손으로 이뤄졌다. 이날 역시 단원들은 극장의 이곳 저곳을 좀 더 예쁘게 꾸미느라 작업복 차림이었다. 극장에서 가장 눈에 띄운 산뜻한 오픈렌지색과 그린색으로 단장한 로비였다. 광주 지역 다른 소극장이 간신히 무대 공간만 마련하고 관객들이 머물고 또 다른 문화체험을 할 공간이 없던 점이 아쉬웠는데 '통'은 이 부분을 해소했다. 극단 측은 로비를 북카페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작가들의 낭독회, 작가와의 만

가칭 '젊은 예술가 열전' 등을 통해 국악, 클래식, 무용 등 각계각층의 예술가들이 함께 관을 펼치는 게 꿈이다. 또 지금까지 3기 회원, 40여명을 배출할 '연극 교실' 역시 활발히 운영, 아마추어들에게도 무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술극장 '통'이 문을 열면서 시내 인근의 소극장은 금남공원(옛 한국은행 자리) 앞에 위치한 공연 1번지, 예술의 거리에 자리잡은 공동예술극장, 극단 토박이가 운영하는 민들레소극장 등 4개로 늘었다. 여기에 금남공원 야외무대, 지난해 문을 연 빛고를 시민문화관, 예술영화 전용극장 광주극장, 옛 전남도청 앞의 콘서트홀까지 다양한 '공간'들이 어우러지면 새로운 문화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도심 이외에 자리잡은 소극장은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운영하는 전남대 정문 인근의 씨다아트홀, 광주시 동구 계림동 홈플러스 인근에 자리잡은 극단 진달래 피네의 문예정터등이며 푸른연극마을도 전용극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설균 대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심에 적합한 아마추어 배우들이었다"며 "극장 '통'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430-5257. http://cafe.daum.net/cton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0석 규모... 로비, 낭독회 등 북카페식 운영

국악·무용 등 각계각층 예술가 소통무대로

은 아지트가 돼보자며,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극장 이름 '통'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타 예술장르와 소통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9일 오후 극장을 찾았다. 전용극장을 오픈하기 위해 3~4년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청춘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와 전남대 인근을 물색하다 현재의 위치에 극장을 열었다. 전기와 수도를 제외하고 조명 설치, 인테리어 등 모든 일은 오대표와 황민형(24), 김은미(28), 채희영(27)씨 등 단원

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공연장은 기존 공동예술극장이나 씨다아트홀보다 훨씬 널찍한 공간이다. 무대도 넓고 객석은 100여석에 달한다. 지난 달 말 간단한 개관식을 가진 '통'의 무대에 처음 오른 이들은 청춘이 운영하는 연극교실에 참가한 아마추어 배우들이었다. 극단 청춘은 4월 정식 개관 공연을 진행한다. 청춘은 이 공간을 단순히 연극만 공연되는 극장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이 상시 유통되는 곳으로 만들려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근 도심에 예술극장 '통'을 개관한 극단 청춘 단원들이 9일 작업 중 잠깐 짬을 내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소유의 삶 발자취 따라

이종승씨 법정스님 1주기 사진전... 20일까지 무각사



"스님의 손에 쥐어진 찻잔과 안경. 스님의 삶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세상에 글로 알려진 스님이지만 손은 유약하기보다는 노동을 단련된 것처럼 여쭙는다. 스님 삶이 어땠는지 그 손이 말해준다. 찻잔과 안경은 당신 삶이 어디서 위로받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차와 책을 가까이하셨던 스님께 이들은 맑은 가난의 친구들이었다." <사진집 '비구, 법정 法頂' 중> '무소유' 정신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다간 법정 스님의 삶과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는 10일부터 20일까지 무각사 문화관 로터스갤러리에서 법정 스님의 입적 1주기를 기념해 추모 사진전을 갖는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동아일보 사진기자 이종승씨가 법정 스님의 생전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개한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3월 법정 스님이 입적하기 전까지 7년간 길상사에서 사진공양을 하면서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일상의 사진을 모아 근승상이라는 필명으로 현정 사진집 '비구, 법정 法頂'(동아일보사 펴냄)을 출간했다. 한편, 문화관 북카페에서는 사진집 '비구, 법정 法頂'과 수록 사진 팸플릿, 2009년 2월 동안거 해제 법문 동영상 DVD 등을 판매한다. 문의 062-383-007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예의 한계를 뛰어넘다

허희태씨 초대전, 16일까지 금호갤러리

글자가 그림이고, 그림이 글자다? 서예가 허희태씨가 10~16일 광주 금호갤러리에서 글자와 그림을 넘나드는 서예 작품을 선보인다. 허씨는 프로젝터와 컴퓨터를 이용해 전통 서예를 변형한 이모그래피(Emography·E-motion+Graphy)라는 독특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는 작가다. 그는 서예의 평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제품 디자인과 광고, LED를 활용한 설치 작업 등을 발표했다. 또 지난 1975년 금호고등학교 2학년때 광주에서 개인전을 연 뒤 이모그래피를 유명가구 디자인과 골프웨어 광고에 활용하는 등 서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회화적 이모그래피, 한글이모그래피, 빛으로 빛낸 이모그래피 등 50점을 선보인다. 한 번의 붓질로 시원스럽게 써내려간 획의 기운과 질감이 잘 나타난 '무소유'와 그림과 서예의 벽을 넘나드는 '이웃사랑'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먹의 번짐과 스미가 잘 표현됐고, 큰 붓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획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또 한글 서예와 전각 예술이 어우러진 단아한 묘미도 선사해 준다. 순천 출신인 허씨는 독일과 서울 등지에서 5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대한민국미술대상전 심사위원, 광주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무산 서예 이모그래피



'이웃사랑'

연구원장, 세계미술연맹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360-843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신임회장

“아름다운 건축문화 시민과 함께”

“전국에서 7000여명의 건축사들이 광주를 찾는 201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축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시건축사회 신임 심상봉(54·사진) 회장은 전국 건축사들의 가장 큰 축제인 대한민국의 건축사대회의 성공을 자신했다. 심 회장은 “다양한 건축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결집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 더욱 많은 건축사들을 초대해 광주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건축 행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편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건축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불편 개선 창구'도 개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축은 시민과 설계자가 함께 즐기는 것이기에 더욱 많은 시민 프로그램



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광주 원룸 건축비리'와 관련하여는 건축사협회의 상벌 규정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늘리는 등 내부 규율 강화를 내놨다. 또 “광주의 근대 건축물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제작해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 소개하는 등 광주의 건축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진에서 태어난 그는 조선대 건축학과를 나온 뒤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대표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i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블랙스완 (18세)	1관 알미엔 오메가3D (전제) / 아이엠넘버포 (12세)
2관 혈투 (15세) / 만추 (15세)	2관 조선명탐정 (12세)
3관 조선명탐정 (12세)	3관 킷롤러 (15세)
4관 아이엠넘버포 (12세)	4관 라퐁젤3D (전제) / 만추 (15세)
5관 메카닉 (18세) / 언노운 (15세)	5관 블랙스완 (18세)
6관 알미엔 오메가3D (전제) / 킷롤러 (15세)	6관 아이들 (15세)
7관 킷롤러 (15세)	7관 메카닉 (18세) / 혈투 (15세)
8관 리멤버미 (12세)	8관 리멤버미 (15세)
9관 랭고 (전제)	9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 랭고 (전제)
10관 아이들 (15세)	10관 랭고 (전제) / 아이들 (15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최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최고급관
1관 킷롤러 (12세)	1관 블랙스완 (18세)
2관 블랙스완 (18세)	2관 아이엠넘버포 (12세)
3관 아이엠넘버포 (12세)	3관 알파엔오메가 (전제) / 언노운 (15세)
4관 알파엔오메가 (전제) / 언노운 (15세)	4관 아이들 (15세)
5관 아이들 (15세)	5관 만추 (15세) / 조선명탐정 (12세)
6관 만추 (15세) / 조선명탐정 (12세)	6관 리멤버미 (15세)
7관 리멤버미 (15세)	7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 랭고 (전제)
8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 랭고 (전제)	8관 메카닉 (18세) / 킷롤러 (12세)
9관 메카닉 (18세) / 킷롤러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아이들 (15세)
2관 아이엠넘버포 (12세)
3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4관 랭고 (전제) / 메카닉 (18세)
5관 리멤버미 (15세)
6관 언노운 (15세) / 조선명탐정 (12세)
7관 블랙스완 (18세)
8관 킷롤러 (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세너스전대3D(4K)상영!!